

하이에크(Hayek)의 경제사상에 대한 한 기독교적 고찰 : 인간이해와 시장질서론을 중심으로

이정길(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논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하이에크의 인간이해와 시장질서론 및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영향을 기독교세계관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하이에크의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갖는 한계는 이성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과 진리인식의 출발점이 인간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성경적인 진리 접근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계시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성경은 계시가 이성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이성에 대한 한계인식은 불가지론이나 무신론으로 연결되는데, 계시에 대한 인정은 이성의 한계와 불가지론 또는 무신론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성의 오류와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시장질서론은 자생적 질서로서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상의 체계이다. 이 이론이 갖는 한계는 시장질서의 자생성이 역사적인 관찰의 결과로 볼 때,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과 성경적 역사관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장질서는 본질상 강자지향성을 갖게 되어, 가치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는 시장외의 외부적 힘에 의한 시장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다. 외부개입을 위한 이론적인 근거는 공동체주의자들이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정의 개념이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적 정의 개념은 시장질서와 그 구성요소인 가격기구 및 사유재산권을 전제한 상태에서, 보완적 개념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관점에서 주주자본주의의 배경이 되는 규제완화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강조 역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주제어: 하이에크, 시장질서론, 주주자본주의

I. 서론

진화론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생물학, 법학 등 다양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이다. 다윈 역시 이들의 영향을 받은 학자로서, 생물학 분야에서 진화론의 신기원을 열었다. 하지만, 다윈의 종의 기원에 관한 이론은 단순히 생물학에만 적용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여타 분야에도 일반화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대상으로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을 들 수 있다. 이는 경제학을 진화론적 시각에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현상에 대한 해석과 경제문제의 해결을 이루어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음을 의미한다. 민경국(2003: 24)은 문화적 진화론과 자생적 질서관을 본격적으로 형성한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진화론적 합리주의 경제학자들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멩거(Menger)와 하이에크(Hayek)를 들고 있다. 이 둘 가운데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학자는 하이에크이다.

한편, 쟈센(Jensen, 1987: 1039)은 그의 논문의 서두에서 자신의 연구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공준(postulata)을 제시하면서, 모든 사회경제학 이론은 인간본성에 대한 이론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 역시 인간본성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토대로 합리주의를 진화론적 합리주의와 구성론적 합리주의¹⁾로 구분하고 있다는 면에서 쟈센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이에크의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는 그가 집단주의나 사회주의 또는 다른 형태의 어떠한 국가적 개입에 대해 반대하면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만이 개인의 욕구충족과 생활수준 향상을 가장 잘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이론적 토대이기도 하다.

하이에크의 이러한 주장은 신자유주의²⁾ 경제학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하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1970년대 세계적인 불황을 겪으면서 그의 이론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핵심적인 경제적 지향점으로 사용되었다. 하지

1) 하이에크에 따르면 구성론적 합리주의는 인간 사건에 대한 연역적인 추론을 믿는 이성적인 학파로서, 그들은 사회와 언어, 법을 위한 인간창조행위를 믿으며, 이성적인 설계에 따르는 인간행위를 통해 제도를 개조하거나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2) 장윤재(2003: 233-234)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반발로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소생시키고 부흥시키려는, 1970년대 이후의 현대 경제사상운동을 가리키는데, 하이에크는 이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창구이다.

만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정부개입 축소정책은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금융위기 가운데서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대해 지식의 자만과 이 자만에 바탕을 둔 계획사상이라고 비판하고, 동시에 사회의 복잡성의 증가에 따라 자생적 질서와 진화의 힘에 대한 의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의 이론은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의 욕구충족과 생활수준 향상에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실체에 대한 이론중 사적자산론의 입장을 중시하는 이론으로서, 주주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중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³⁾. 최근에 대두된 주주자본주의의 강화는 근본적으로 하이에크의 시장근본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하이에크의 시장근본주의에서 금융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는 다른 어떤 규제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⁴⁾, 그 결과 전세계적인 금융의 통합과 상호의존성 강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금융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중 하나를 이를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요소인 시장근본주의는 금융규제 완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를 거치면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데도 기여했다. 이는 금융자본우위의 경제질서가 또 다른 신자유주의의 한 구성요소임을 의미한다⁵⁾. 금융자본우위의 경제질서에서 금융자본은 노동의 절약과 감량영역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며, 또 생산된 이윤중 더 큰 부분을 배당금으로 지불하도록 요구하는데, 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주가치의 최대화이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에서 절대시하는 사유재산권과

3) 주주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하여서는 소유권적 관점과 계약적 관점이 있다. 이중 전자가 전통적인 주주자본주의의 관점에 해당하며, 계약주의 회사관의 관점에서는 주주가 회사를 소유한다고 보지 않고,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복잡한 계약의 결합체로 본다. 후자의 관점에서 주주는 회사를 구성하는 생산요소의 소유자는 될 수 있지만, 회사 자체를 소유한 사람은 아니며, 회사는 회사를 구성하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계약적 관점의 주주자본주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수렴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신석훈(2009: 2장)). 본 연구에서 주주자본주의라고 할 때에는 전통적인 주주자본주의 즉 소유권적 관점에서 언급한 것이다.

4) 영국, 미국 등의 금융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에디와 비딩(Edey and Hviding, 1995)을, 일본의 금융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김동환(1997: 2장)을, 국내에서의 금융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각 연도별 자본시장제도동향(2005~2009)를 참조할 것.

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원희·조복현(2007: 1장)을 참조할 것.

이윤추구활동은 기업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자로서의 주주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따라서 주주자본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은 곧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 확산과 필연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에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연구는 일차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갖는 한계에 대한 연구이면서 동시에 주주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하이에크가 미친 영향과 한계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특히 하이에크의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이해의 토대에서 도출된 자생적 질서론, 자생적 질서의 핵심적 개념으로서의 시장 질서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분석은 현대 주주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이의 문제점에 대한 기독교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⁶⁾에서 하이에크의 인간이해가 갖고 있는 자생적 질서 및 초월적 존재에 대한 부정 또는 불가지론과의 필연적 관련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어서 그의 자생적 시장질서의 자생성과 증명성에 대한 분석 및 시장질서의 핵심적 구성요인인 사유재산권과 가격기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하이에크의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와 이에서 파생된 시장질서론과 주주자본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III장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하이에크의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와 시장질서론 및 주주자본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IV장은 본연구의 요약과 결론이다.

II. 하이에크의 인간 이해와 시장질서론

1. 진화론적 인식론과 인간이성 이해

하이에크의 진화사상은 세 가지 차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각각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행동규칙과 제도 및 도덕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진화는 진화론과 인지이론을 결합한 진화론적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6) 본 연구는 여러 기독교적 관점 가운데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을 갖고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다른 신학적 접근법과 결과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학습과 혁신, 정신작용의 원리 및 진화와 관련된 이론이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진화는 지식의 확산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주로 시장경제에서의 경쟁과 관련되어 있다. 세 번째 차원의 진화는 도덕이나 행동규칙과 관련되어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차원 가운데서, 인간 이성과 관련된 차원은 첫 번째의 진화론적 인식론이다. 진화론적 인식론의 핵심은 이성의 구조적 한계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압목적 성격이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인간이 외부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외부세계보다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 역이 현실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세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을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더욱 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한계는 영원하다. 이는 인간이 보편적 진리 인식을 가질 수도 없고, 진리를 파악할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절대적 진리는 절대적 진리를 인식할 수 없는 이성의 한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하이에크에 있어서 이러한 인간 이성의 한계는 곧 인간의 본성이자 삶의 조건이었다.

이성의 한계로 인해 보편적 진리를 인식할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개별행위간의 조정을 이루게 하는 행위규칙이다. 행위규칙은 조직규칙과 일반적 규칙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하이에크가 말한 행동기준으로서의 규칙은 일반적 규칙이다. 일반적 규칙의 특징은 추상성과 보편성이다. 즉, 인간은 그의 이성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획득할 수는 없지만, 추상성과 보편성을 갖는 일반적 규칙을 통해 그의 행동을 제약받게 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인간은 자신이 준수하는 규율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동시에 이 규율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규율행동이라고 한다. 이 규칙은 개개인의 처지와 인격을 고려하는 규칙이 아닌 비인격적이며 엄격한 행동규칙이다(김찬수, 1997: 6).

규율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모방이다. 하이에크는 문화의 진화는 인간의 모방능력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Hayek, 1988: 52).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본유적 특성은 모방능력이며, 이 능력은 비분능적 동물로서의 인간을 가능하게 하는 본능이다⁷⁾. 사람들

7) 모방은 하이에크의 사상전개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념중의 하나이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문명화의 역사는 모방의 능력에 의해 정신에 심어진 문화와 전통에 의한 본유적 반응의 억압의 역사로서 모

은 이 모방능력을 활용해서 공동체의 규칙을 모방하고 학습한다. 하지만, 인간의 모방은 단순한 모방에서 그치지 않고, 목적의식적인 규칙 파괴행위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 행위가 바로 진화를 유발한다. 즉, 목적추구적인 행동으로 인해 변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변이가 성공적이 되면, 그 변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방되거나 채택되어 규칙의 진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모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칙 파괴적 행위가 목적의식적이라고 해서 일반적 행위규칙 자체가 목적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 행위규칙의 또 다른 특징이면서 조직규칙과 대조되는 점은 이 규칙은 목적적이거나 인위적이지 않고 진화적이라는 점이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진화를 문화적 진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적 진화는 어떤 임의로 선택된 규칙들이 한 집단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여 우세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무목적적으로 선택된 것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 문화적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가능한 여러 규칙들 가운데 어떤 대안이 채택되고, 일반적 규칙화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가 경쟁이다. 그러므로 경쟁은 변화를 포괄하는 과정이며, 생물학적 진화론에서 적자생존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결국 하이에크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첫째, 인간 이성의 한계와 이로 인한 보편적 진리 인식의 결여, 둘째, 보편적 진리인식에 무지한 인간에게 존재하는 행동규율로서의 일반적 행위규칙의 필연성, 셋째, 모방과 목적의식적인 규칙 파괴 행위 및 규칙간의 경쟁에 기초한 문화적 진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이에크의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그의 경제이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시장질서론과 주주자본주의

(1) 시장질서의 궁극성

인간이성의 한계는 하이에크 경제이론의 근원적인 출발점이다. 하이에크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 역시 그의 인간이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구성주의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인위적으로 설정된

방은 그 어떤 본유적 반응들보다도 더 중요한 능력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두푸이(Dupuy, 1996: 3장)을 참조할 것.

질서에 불과하며, 이러한 질서는 이성의 한계만큼이나 본질적인 한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질서란 무엇인가?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질서는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구성 요소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중 일부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지식을 통해 나머지에 관한 정확한 예측을 하거나 최소한 정확성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물의 상태”이다(Hayek, 1973: 68). 즉, 질서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연관되어 부분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나머지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체계”이다(이근식, 2009: 514-515). 그런데 인간이성의 한계와 인간지식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이 질서는 인위적으로 설정될 수 없으며, 자생적으로 생성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하이에크의 질서가 인간행동의 산물이지만,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적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들이 특정한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인해 생성되는 질서라는 것을 의미한다⁸⁾. 그러므로 이 질서는 목적적이지 않고, 자생적이며 결과적이다. 즉, 인간행동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인간 계획의 결과는 아닌 질서가 자생적 질서이다. 또한 이 질서는 인간의 양심이나 혹은 이성의 자기성찰에 기초한 도덕성에 바탕을 둔 사회와도 거리가 멀다(최준호, 2005: 109).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예가 시장질서이다. 하이에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상의 체계를 시장질서라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시장질서의 다음 단계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역사의 발전은 시장경제의 양적인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홍 훈, 2009: 304). 이런 관점에서 시장질서는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에서의 궁극적인 종착점이다. 만일 시장질서가 아닌 어떤 대안이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질서를 대신해 자리하기 위해서는 인구성장이나 번영과 같은 측면에서 시장질서보다 우세한 성공을 보여 주어야 한다(Hayek, 1988: 41-43). 그러나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시장이 아닌 정부의 개입이나, 특정집단의 계획은 우세한 성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시장질서를 대신할 수 없다. 사회주의나 정부개입과 같은 모든 시도는 인간이성의 한계속에 닫혀 있다. 오직 시장질서만이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며, 다른 모든 대안에 대해 우월적이다.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에서 시장이 불완전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균형상태로 조정될

8) 그러나 이것이 질서가 규칙들의 단순함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질서는 규칙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규칙들간의 관계의 망이며, 외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완전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는 환경의 변화가 질서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 있는 것은 가격시스템과 경쟁 때문이다. 시장질서안에서 지식의 전달은 가격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장질서의 참여자들은 가격시스템에 의해 관련 지식을 전달받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 가격이 담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며,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한다. 그러므로 가격시스템과 이와 관련된 경쟁이 시장질서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이며, 이 두 핵심요건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개입은 기대하는 균형의 회복이 아니라,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은 자충족적인 폐쇄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시장질서론과 주주자본주의의 연관성

그렇다면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이 금융시장 또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영향이란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주자본주의는 기업발전론의 최종단계에 나타나는 모델이면서 동시에 기업실체에 대한 이론중 사적자산론의 입장을 중시하는 이론이다⁹⁾. 사적자산론은 주식회사가 주주의 사적인 재산이라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목적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목적을 주주가치의 최대화라고 주장하며, 경영자는 주주가치의 최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주자본주의의 발전은 미국경제의 변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개인자본주의 단계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단계로 기업의 경영체제가 변화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은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상충의 문제이다. 이 이해상충은 경영자가 경영권력의 최대화를 위해 여유현금흐름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보다는 자신의 통제하에 둬으로써 배당에 따른 경영자 권력의 감소를 회피하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집행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하는데서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경영자는 배당 지급 이후, 신규 필요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감시와 간섭을 피하고자 여유현금흐름의 유보를 통한 내부조달을 선호하기도 한다.

한편 주주의 입장에서는 경영자가 여유현금흐름의 배당을 통한 내부유보를 선호할 지라도, 유보된 자원을 활용하여 우월한 생산력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9) 주주자본주의의 이론적 배경 등에 대해서는 강종만·최은경(1998: 2장), 신석훈(2009: 2장)을 참조할 것.

보장하기만 하면, 경영자의 이러한 행위를 막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경영자 중심의 자본주의의 유지여부가 혁신을 통한 경쟁우위의 확보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후 독일과 일본 기업들의 급속한 경쟁력 확보와 성장은 미국기업들의 경쟁우위를 급격히 약화시켰고, 이는 미국기업들의 자본생산성 악화와 이윤을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자본생산성 악화는 곧 주주이익의 악화이며, 이는 생산성 우위가 지속되던 상황에서는 표면화되지 않았던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표면화되는 것을 의미했다(조영철, 2007: 2장).

주주자본주의가 득세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금융유동성과 국가간의 자본이동을 통한 이탈효과와 규율과 규제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다.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금융유동성과 자본이동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기업경영을 금융유동성이 지배하는 자본시장 규율에 종속시켰다(조원희·조복현, 2007: 1장). 금융유동성이 지배하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주가치의 최대화이며, 자본수익성의 극대화이다. 펀드와 연기금 등에 의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투자의 주류를 형성하고, 펀드간의 경쟁이 격화됨으로서 주주가치의 최대화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단기적인 가치증대가 더욱 강조되었다. 따라서 펀드자본주의 역시 금융의 증권화와 함께 실질적으로 주주자본주의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금융 유동성에 의한 기업지배로의 전환 과정에서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이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이 추구하는 본질적 경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경향은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질서에 대한 일체의 인위적인 개입의 배제이다. 하이에크가 의도하는 바대로 시장질서가 현 시대에서 궁극적인 질서라고 할 때, 이 시장질서에 저해가 되는 어떤 인위적인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는 정책적인 면에서는 국가개입의 축소, 대폭적인 민영화,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론을 정책적으로 수용한 대표적인 국가가 대처 시대의 영국과 레이건 시대의 미국이었다. 기업들의 경쟁우위가 상실되는 과정에서 미국정부는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급속하게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경쟁력이 약화된 미국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인 임금상승 억제와 노동자에 대한 압박, 보다 수익성이 높은 해외투자의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었다. 정부는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들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국가의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조치를 취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경계를 완화함으로써 형성과정이 상이한 자본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였다.

케인즈주의에 대한 회의가 점증하는 가운데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곧 시장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했고, 시장기능 확대의 궁극적인 지향점에는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이 있었다. 정책 결정자들이나 규제완화를 요구한 자본들이 하이에크의 시장질서 이론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규제완화의 궁극적 형태가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임은 분명한 일이다.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은 시장근본주의로 연결되어, 금융유동성의 확대를 강화시켰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 의한 기업지배는 더욱 공고해졌다. 자본시장에서의 기관투자자 비중의 확대는 자본시장에 의한 기업지배가 주주가치의 최대화를 추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 즉, 기관투자자들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발언권 강화가 기업의 장기적인 내재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성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단기적인 주가최대화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다. 단기적인 주가최대화는 노동자, 부품공급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주주들의 탈취행동으로 구조화되었다. 기업들에게 있어서 자본시장의 이러한 탈취요구는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이들 금융자본들이 취할 수 있는 자본과업의 압력에 기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이에크의 이론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강조를 통해 주주자본주의의 강화에 기여했다(Hayek, 1996: 67-81). 주식회사에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은 주주들에게 있는 바, 소유권의 절대적 강조는 회사의 주인으로서 주주가 주주권을 무한대로 행사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논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 주주들의 주주권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할 때에, 주주의 절대적 사유재산권은 주인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침해를 불가피하게 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특히, 시장질서론에 따른 시장자유화, 규제완화, 국제간의 자본이동,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우위강화 등은 주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강조와 맞물리면서 주주자본주의를 더욱 심화시켰다.

요약하면,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에 근거한 시장근본주의는 민영화, 금융시장에서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본의 힘을 강화시켰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강조와 결합되어 자본의 소유자이자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절대적 소유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침해될 여지는 현저히 높아졌다.

III. 하이에크 이론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일반적인 학문과 기독교적 관점의 학문은 본질적으로 그 전제나 시작점에서 상이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론에 있어서는 유사성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적인 하이에크에 대한 연구 결과들과 기독교적 관점의 연구결과들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만의 분석결과도 제시하고자 한다.

1. 인간본성 이해에 대한 고찰

하이에크의 인간본성 이해에 있어서 핵심은 이성의 한계로 인해 인간은 이 우주나 세계에 대해 보편적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이성이 절대시 되었던 합리주의 및 이에 영향을 받은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의를 갖기도 한다¹⁰⁾. 인간은 진화에 의해 생성된 일반규칙을 준수하지만, 이러한 규칙의 준수가 그 진리를 알고 있음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자신이 모르는 규칙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이는 무지숙의 순종이다. 이성인 순종을 하도록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진리 자체를 알게 하지는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성의 이러한 제한성이 하이에크가 주장하는 바처럼 곧바로 자생적 질서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지, 그리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부정 또는 불가지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지를 중심으로 하이에크 주장의 한계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자생적 질서의 필연성은 이성의 한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이성의 한계는 본연적으로 이성의 개입을 배제하는 자생적 질서를 요구할 수밖에

10) 하이에크의 인간 이성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비판 자체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에크의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민경국(2003: 31-56)이 잘 요약하고 있으며, 합리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은 쉐퍼(Schaffer, 1968: 19-21)가 잘 정리해서 지적하고 있다.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하이에크의 이러한 주장은 이성의 불완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월성 또는 시장의 완전성으로도 규정지를 수 있다(곽형모, 2009: 14-19). 즉, 그가 주장하는 바, 이성의 불완전성을 고려한 인간적 개입의 배제와 시장의 자생적 질서의 강조는 결국 시장의 완전성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면, 또는 시장의 이성에 대한 우월성이 제한적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최근의 금융위기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시장의 불완전성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개입¹¹⁾은 하이에크의 시장의 절대우위성 주장에 대한 반론적 현상의 하나로 보인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볼 때 경제는 시장과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 둘 다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는 시장과 이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양자 모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양자간의 균형을 어떻게 도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집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성이 한계를 갖고 있다면, 시장 역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은 피조물과 그가 거하는 세계, 그리고 피조세계 내의 사회적 질서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성경적인 견해와도 부응한다. 정리하면, 하이에크가 주장하는 인간이성의 한계와 오류가 부분적으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시장의 자생적 질서의 절대적 우위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인간이성 이해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점은 그에게 있어서 이성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즉, 인간이 보편적 진리 인식을 함에 있어서 유일한 수단은 이성이며, 이 이성이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인간은 진리의 내용이나, 진리자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이성 이해는 보편적 진리 인식의 불가능성을 통해, 초월적 존재에 대한 불가지론이나 불인정으로 연결된다. 이 지점에서 그의 진리인식은 기독교적 진리인식과 대조된다.

신약성경에서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 ἀλήθεια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 98회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 사실로서의 진리이며 동시에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진리이다. 즉, ἀλήθεια는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를 모두 나타내는 용어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자신에게 적용

11)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 통폐합, 금융기관 지분인수 등 다양한 시장개입 정책을 취했으며, 이러한 시장개입 정책은 일정 부분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한복음 14:6)”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청중들을 향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라고 말씀하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진리의 영(요한복음 14:17)”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대한 적용을 자신뿐만 아니라 삼위하나님께로 확대 적용하고 계신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인식은 바울서신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며, 야고보서(1:18, 3:14, 5:19), 베드로전·후서(베드로전서 1:22; 베드로후서 1:12, 2:2), 요한일·이·삼서(요한일서 1:6외 17회), 히브리서(10:26)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 진리는 단순히 객관적인 실체이신 예수그리스도나 삼위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진리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며, 거룩하게 한다(요한복음 17:19). 그러므로 진리는 객관적인 실체이신 하나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이며(요한복음 17:17),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씀한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진리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성경은 진리를 모른 채 믿는 무지 가운데서의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믿는 믿음을 전제한다¹²⁾. 구원은 진리를 알고 믿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구원의 필연적인 전제이다. 하이에크의 주장대로 복잡성이 떨어지는 인간이 더 복잡한 우주와 세계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¹³⁾. 그러므로 하이에크적인 인간에게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오류는 무엇인가?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모든 이론의 출발점은 인간이다. 인간이성의 한계를 강조했다면 면에서 그는 합리주의와는 다르지

12) 물론 우리가 진리를 완전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진리 자체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3) 이런 관점에서 하이에크는 철저히 칸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시장의 힘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감각적 세계외에 다른 일체의 세계, 즉, 초월적 세계를 부정한다. 하지만 칸트가 실천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에 다가갔다는 점에서 그의 신이해는 칸트와 결별한다. 그에게 있어서 신은 “도덕률과 전통적 가치에 대한 의인화”에 불과하다.

만, 인간 자신이 이론의 궁극적인 출발점이라는 면에서 그는 합리주의자와 동일하다. 주장의 내용이 합리주의와 그에 대한 논박이라고 할 지라도, 그 출발점이 인간이라면 이는 인간의 자율성과 연관될 수 밖에 없다. 합리주의자들은 자율적인 인간의 가능성을 주목했고, 하이에크는 자율적 인간의 한계를 주목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합리주의자들은 자율적 인간에 대한 신뢰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할 이유가 없었다. 하이에크는 자율적 인간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를 하나님께로 옮기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성과 무관한, 그렇지만 자율적인 인간과 관련된 문화적 진화와 그 결과물인 자생적 질서에 주목했다. 하이에크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신론적인 하나님이다. 생물학에서의 진화와 동일하게 문화적 진화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성경은 자율적인 인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성경은 진리 문제에 대한 출발점을 하나님으로 보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사람들은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진리를 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로 한다.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성경이 하나님, 더 나아가서 계시를 지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인간을 출발점으로 삼는 합리주의나 하이에크에 대비된다. 계시로부터 시작되는 지식, 즉 계시적인 지식은 이성만을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시적 지식은 관계적 지식이며 인격적 지식이고, 윤리적 지식이다¹⁴⁾. 계시적 지식이 인격적이라 함은 그 지식을 획득함에 있어서 전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적이라 함은 그 지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시적 지식이 윤리적이라는 것은 계시적 지식이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되며, 윤리적 성결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계시적 지식이 이성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¹⁵⁾. 계시적 지식의 관점에서 인간이 진리에 대해 반응하고,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성을 포함한 전인격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되어 아는 것이다.

요약하면, 하이에크의 인간 이성의 한계와 오류에 대한 인식이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으로 연결된 반면, 성경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계시적 지식을

14) 지식의 인격성과 관계성에 대해서는 쉐퍼(Schaffer, 1968a: 237-238, 더 나아가서는 이 책 전체)를 참조할 것.

15)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이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쉐퍼(Schaffer, 1968b: 365-378)를 참조할 것.

통해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하이에크에 있어서 인간 이성의 오류와 한계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부정과 자생적 질서의 우선성으로 연결되었지만, 기독교에서 인간 이성의 한계와 오류는 계시적 지식의 우선성으로 연결된다.

다른 학문적 논의를 고려하더라도 인간 이성의 오류와 한계가 필연적으로 초월적 존재의 부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칸트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초월적 실재를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도덕적 당위성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초월적 존재를 인정할 수 있었다. 그렌츠와 올슨(Grenz and Olson, 1992: 35)이 지적하는 대로 계시로부터 초월적 존재의 속성들을 논의하던 고전적 신학자들과는 달리, 칸트는 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로 이행할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이에크가 말하는 바, 인간 이성의 한계와 오류가 곧 초월적 존재의 부정으로 당연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¹⁶⁾. 만일, 초월적 존재가 필연적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과 그의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계시적 지식 역시, 이성의 한계와 오류에 대한 대안으로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장질서론과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1) 시장질서의 자생성과 중립성에 대한 고찰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인간 이성의 오류에 대한 인식은 자생적 질서론으로 연결되었다. 자생적 질서는 계획되지 않은 인간행동의 산물이다. 이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형태가 시장질서이다. 시장질서는 자생적인 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며, 인간행동의 결과이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시장질서는 최종적이며 최상인 질서이며, 이후의 역사는 시장질서의 양적인 확대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에서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는 궁극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에크의 시장질서에 대한 이러한 주장을 시장질서의 자생성, 시장질서의 중립성이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16) 칸트에 대한 본 연구의 기술이 칸트의 신학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는 다만, 이성의 한계와 오류가 반드시 초월적 존재의 부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장한 바,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이 진실로 자생적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윤재(2003: 250)와 폴라니(Polanyi, 1957: 35, 140)는 역사적으로 자유시장은 중앙집권적이고 강력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함으로써 하이에크를 논박한다¹⁷⁾. 장하준(2007: 예를 들어 1장)도 영국이나 미국의 예를 들면서 정치논리가 개입되지 않은 시장질서의 자생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준호(2005: 125)는 시장질서의 자생성이 실상은 비시장적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정치적 설계를 함축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상의 주장은 하이에크가 주장하는 바, 시장질서의 자생성이 실질적으로 자생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장질서의 자생성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분석할 필요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시장질서의 자생성은 문화적 진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문화적 진화의 특징은 생물학적 진화와 마찬가지로 사회질서의 설계자도 관리자도 없으며, 진화의 방향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에크의 이러한 주장은 문화적 진화가 결국 역사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때, 기독교적 역사관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주장하며(시편 103:19),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베빙턴(Bebbington, 1990: 78)은 기독교 섭리 사상의 세 가지 핵심적인 신념을 제시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한다는 것, 그 분은 역사를 일직선으로 인도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분은 역사를 자신의 계획한 목적지로 이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이에크의 시장질서의 자생성이 갖는 함의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로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는 이 질서가 가장 우세하기 때문에 궁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강자 지향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박호성(2002: 109)에 의해서도 제시되는데, 그에 의하면, 다윈주의에 뿌리를 둔 시장경제체제는 결국 정치적 지배계급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할 수 밖에 없다¹⁸⁾. 이는 하이에크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그의 시장질서가 결국은 소수자의 행복을 위해 다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쉬의 게임이론

17) 폴라니(Polanyi, 1957: 35, 140)의 것을 장윤재(2003: 250)에서 재인용.

18) 기본적인 성향에 있어서도 하이에크는 전통을 중시하는 귀족정치를 선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영국식의 귀족정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상수, 2000: 187).

이 암시하는 것처럼 시장질서하에서 추구하는 개인이익의 최대화가 사회전체 이익의 최소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제시한다(곽노완, 2009: 13).

한편,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 역시 시장질서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사람들간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이는 인간의 이성이 시장질서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죄성은 언제든지 시장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시장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영향력이 균등하지 않다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의 오염된 이성이 시장을 강자지향적인 것으로 변질시킬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잠언 22:7)”라는 말씀은 다른 인위적 개입 또는 외적인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현상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지배계급의 이해가 중요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탐욕을 경계(예를 들어 아모스 2:6-8)하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제한받지 않는 자유와 이를 전제로 한 시장질서가 언제든지 약자를 핍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준호(2005: 112)가 주장하는 하이에크의 시장질서가 가치중립적이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윤리 역시 진화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러한 윤리가 당위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에크의 윤리는 상대적이다. 결국, 그의 윤리의 상대성, 무당위성, 시장질서의 강자 지향적 성격을 결합해서 이해하면, 그의 시장질서는 이미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 자체가 갖는 성경적, 성경외적인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한계성 역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시장에 대해 경제적인 적용을 함에 있어서 시장질서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사유재산권과 가격기구에 대한 고찰

시장질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사유재산권과 가격기구이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사유재산권과 가격기구는 인간이 구조적인 무지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행동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개인

의 자유와 본연적으로 연결된 권리로서 절대적이며,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다.

그렇다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어떠한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절대성이나 사유권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이에크와 차이를 갖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유재산권은 절대적인 배타성과 독점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적 관점의 사유재산권은 하나님의 원소유권을 인정하는 전제위에서 성립하는 대리인적 소유권이다(최태연, 2002: 3). 이러한 대리인적 소유권의 출발점은 창세기 1장 27-28절의 대위임령이다. 하지만, 대리인적 소유권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유재산권은 실제로 강력하다. 시편 8장 5절의 말씀대로 인간은 세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며, 이 지위를 가지고 피조물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사유재산권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¹⁹⁾(창세기 15:7; 여호수아 13:7-8; 욥기 42:12; 마태복음 25:14-30 등).

사유재산권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유재산권의 절대성을 부정하거나 공동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성경적 증거가 풍부하다²⁰⁾. 하나님은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공동체적 정의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²¹⁾. 레위기 19장 11-13절에서 하나님은 도적질과 서로 속이는 행위를 경계하시며, 이웃을 압제하거나 능탈하거나 품군의 삶을 밤새도록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금하신다. 뿐만 아니라 35-36절에서는 도량형의 조작과 이를 통한 사취를 금하시며, 희년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레위기 25:11-16).

요약하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그 사유재산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공동체²²⁾적 유익을 위해 제약을 가할 수도 있는 것

19) 사도행전 2장 45절에 나오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라는 말씀을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정과 재산공유에 대한 긍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신약의 다른 성경이나 구절에서 이런 형태의 삶을 찾기란 쉽지 않다.

20)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은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들은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을 관심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1) 공동체적 정의의 문제는 기독교에서의 인간 이해가 기본적으로 관계적이라는 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인간 및 다른 피조물과 관계를 갖는 존재로 창조되었다(이근영, 2010: 56).

22)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이나 성경적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는 사회적 연대의식을

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적 제약은 매우 소극적인 의미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증거는 일반적으로 공동체적 제약이 약자에 대한 보호나, 강자에 의한 위해를 금지하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격기구는 본질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전제하여 작동되며, 가격기구를 통해 사유재산적 권리가 제 3자에게 이전된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가격기구는 인간의 이성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식의 저장수단이지만, 그 지식은 본질적으로 암묵적이다. 하이에크는 지식의 관점에서 시장기능을 능가할 수단은 없으며, 가격기능에 의한 배분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가격기구에 의한 자원의 배분을 능가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수단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격기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어떠한가?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격기구를 지지하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매매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격기구에 대한 성경적 인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2장 6-11절에서 자신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로부터 땅을 구입하는데, 이는 여호와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성전에서의 매매를 정화하시지만, 매매 제도 자체를 금하지는 아니하셨다. 하지만, 매매와 이의 전제가 되는 가격기구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한 이러한 매매에 있어서 인간의 죄의 본성이 개입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다(레위기 19:35-36).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로부터 가격기구 자체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격기구가 인간의 죄성에 노출될 수 있음 역시 기억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도 고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구속된 백성들의 공동체를 지향한다(Grenz, 2001: 319). 그러나 이 지향점은 교회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것과 결합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면서 동시에 경제문제에 있어서 공동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Stapleford, 2007:

가질 수 있는 범위의 공동체이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국가나 지역 사회가 될 것이다.

31). 이는 하나님께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약자에 대한 강자의 배려²³⁾를 강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질서의 핵심적인 작용요소인 사유재산권과 가격기구가 궁극적인 선으로 연결된다면, 끊임없이 공동체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검증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⁴⁾.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우즈바르트(Goudzwaard)의 돌봄의 경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우성, 2001: 15). 또한,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대안으로서 판 빠레이스(Van Parijs)가 주장한 지속가능한 최대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하이에크의 시장질서가 공동체적 정의라는 관점에 의해 검증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이 주주자본주의에 대해 갖는 함의는 주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공동체적 정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주주자본주의하에서 나타나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납품가 인하 요구 등은 주주 가치 제고-특히, 대기업-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종업원의 삶의 질 하락, 중소기업의 성장여건 저해라는 관점에서 공동체적 정의에 반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독점적 기업합병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주주자본주의하에서 단기적인 주가최대화가 중요시되면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이익 역시 침해되기도 한다. 기업경영자는 연구개발투자 등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자기주식 취득이나 배당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23)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24:19-21을 들 수 있다.

24) 기독교외의 학문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들로는 매킨타이어, 샌들, 케일러, 왈쩌 등이 있다. 이들은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보다 사회적 책임과 연대성(공동체성)을 더 중시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다(손철성, 2007: 22-25). 그러나 이들의 공동체주의적 주장이 성경적 관점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주장의 기본적인 전제는 기독교적 주장과는 다르다. 이들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이 대체로 아리스토텔레스나 헤겔의 지적유산에 연결되어 있는 반면, 기독교적 주장은 성경의 주장을 그 근거로 한다.

특히, 주식회사 제도와 관련하여 회사가 주주의 사유재산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만일, 회사를 단순한 조직체가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주주는 단순 투자자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유기체 논리가 주주의 사유재산권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기체 관점은 주주의 절대적 사유재산권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그러나 기업을 유기체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성경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법인격을 갖는 주식회사 제도가 없었고, 기업은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인 소유물로서 모든 거래행위의 주체가 그 소유자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계약적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볼 수도 있다. 계약주의 회사관의 관점에서는 주주가 회사를 소유한다고 보지 않고,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복잡한 계약의 결합체로 본다. 이 관점에서 주주는 회사를 구성하는 생산요소의 소유자는 될 수 있지만, 회사 자체를 소유한 사람은 아니며, 회사는 회사를 구성하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계약적 관점의 주주자본주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수렴되는 점이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공동체적 정의를 지향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하에서는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회사를 주주의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면에서 성경적인 사유재산권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히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회사가 주주의 사적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사적소유권이 회사에 관련된 내외부 이해관계자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결과적인 경영의 내용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유사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전제는 이와 상이하다.

결론적으로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는 현상적으로 자생적이라고 볼 수 없는 많은 증거들에 의해 그 정당성의 상당 부분이 기각되어질 뿐만 아니라, 강자지향적 성격으로 인해 오히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비성경적이라고 부정하거나, 사유재산권과 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래를 가능케 하는 가격기구와 경쟁을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의 절대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

지를 보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들 체제의 효율성과 효과성 및 한계점을 동시에 인식하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런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이익을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때로는 정부의 개입이나, 제도적 제약이 고려될 수도 있다. 주주자본주의 역시 발전과정에서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적 배경이 있음을 고려할 때, 동일한 공동체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검증받고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적인 주주이익 최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이해를 존중하며,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하이에크의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와 그로부터 파생된 시장질서론을 분석하고, 하이에크의 이론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주주자본주의에 대해 하이에크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서도 기독교 세계관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이에크의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는 이성의 한계 내지는 이성의 오류로 요약할 수 있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이성은 세계와 우주를 이해하는 유일한 수단이나, 이성의 한계는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의 인식을 결여하게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개별행위간의 조정을 이루게 하는 행위규칙, 그 가운데서도 일반적 행위규칙이다. 이 행위규칙은 모방과 목적의식적인 규칙 파괴 행위 및 규칙간의 경쟁에 기초한 문화적 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에크의 이론은 이성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진리인식의 출발점이 인간이라는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그에게는 이성을 제외하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리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 진리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다.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은 진리인식의 출발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

님임을 의미한다. 또한 하이에크는 이성의 오류를 필연적으로 자생적 질서의 우위성과 연관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은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최근의 경험과 피조물의 유한성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이성의 한계에서 출발한 하이에크의 종착점은 자생적 시장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예가 시장질서이다. 하이에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상의 체계를 시장질서라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시장질서는 최종적인 단계이다. 이 시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요소는 가격시스템과 경쟁이다. 그의 이러한 시장질서론은 미국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이에 기인한 자본생산성의 악화 및 이윤율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완화의 이념적 배경이 되었다. 특히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금융유동성과 자본이동을 더욱 강화시켜, 자본수익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를 한층 강화시켰다. 또한 주주의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강조를 통해 주주권의 행사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나타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장에 자생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면에서, 그리고 시장질서의 토대가 되는 문화적 진화의 이론이 성경적 역사관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시장질서론은 본질적으로 강자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치중립적이지 못하며, 시장질서에 모든 것을 내맡길 경우 소수에 의한 다수의 희생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적 정의를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질서를 구성하는 핵심요인인 사유재산권과 가격기구 역시 성경적 토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과 공동체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끊임없는 검증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은 주주자본주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적신학적 논의가 지향해야 할 두 가지 접근중 교회 내적 논의에 보다 집중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신학적 논의는 교회 내적 논의와 교회 밖을 향한 논의 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즉, 성경적 논의, 교리적 논의, 교회사적 논의와 같은 교회 내적 논의 뿐만 아니라, 계시의 언어나 종교적 경험에 호소하는 언어가 아닌 이 세상과 공유하는 경험과 인간들의 같은 생각을 이끌어 내는 교회 밖을 향한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²⁵⁾ 하지만, 본 연구는 교회 내적

2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승구(2010: 15-53)을 참조할 것.

논의 특히, 성경적 논의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교회 밖을 향한 논의가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종만·최은경 (1998).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서울: 한국증권연구원.
- 곽노완 (2009). “신자유주의와 실질적 자유시장주의의 경제철학: 하이에크의 시장중심주의와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18. 1-32.
- 곽형모 (2009). “시정과 인문학”. 『희망세상』 8. 14-19.
- 김동환 (1997). “일본의 금융빅뱅”.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 김찬수 (1997). “F. Hayek의 자생적 시장질서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민경국 (1996). 『진화나 창조냐 : Hayek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사회철학』. 서울: 자유기업센터.
- 민경국 (1997).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 질서경제학과 주류경제학』. 서울: 자유기업센터.
- 민경국 (2003).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서울: 위즈비즈.
- 박상수 (2000). “하이에크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3. 176-197.
- 박승호 (2004). “케인스주의적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의 이행 : 마르크스의 역사 유물론에 입각한 해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6. 1-22.
- 박호성 (2002). “자유주의적 인간론 서설”. 『사회과학연구』 10. 109-124.
- 손철성 (2007).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요 논쟁점에 대한 검토”. 『동서사상』 3. 17-32.
- 신석훈 (2009).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범경제학적 접근”.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이근영 (2010). 『기독교 경제학』. 서울: 스텝스톤.
- 이근식 (2009). 『자유주의 사회경제 사상』. 서울: 한길사.
- 이승구 (2010). 『광장의 신학』.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 이영호 (2006). “Hayek의 경쟁화폐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이우성 (2001). “기독교 경제학에 대한 역사적 소고”. 『신앙과 학문』 6(2). 43-73.
- 임일섭 (2000). 『행동규칙과 자생적 질서』. 서울: 자유기업센터.
- 장윤재 (2003). “경제 세계화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사상』 123. 229-261.
- 장하준 (2007). 『나쁜 사마리아인들』. 서울: 부키.
- 조영철 (2007).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진로』. 서울: 후미니타스.
- 조원희·조복현 (2007). “신자유주의와 비용외부화: 신자유주의의 본질과 발전”. 김형기 편. 『현대자본주의 분석』. 서울: 한울.
- 최준호 (2005). “시장질서와 경제적 합리성: 하이에크의 논의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29. 105-129.
- 최태연 (2002). “경제원리에 대한 기독교 철학적 논의”. 『신앙과 학문』 7(2). 154-178.
- 홍 훈 (2000). 『마르크스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사상』. 서울: 아카넷.
- Bebbington, David (1990). *Patterns in History: A Christian Perspective on Historical Thought*. 김진홍·조호연 역 (1997). 『역사관의 유형들』. 서울: IVP.
- Dupuy, J. P. (1996). “The Autonomy of Social Reality: On the Contribution of Systems Theory to the Theory of Society” in: Khalil, L. and E. Bouldin (Ed.).

- Evolution, Order and Complexity*. London: Routledge
- Edey, M. and Hvidjng, K. (1995). "An Assessment of Financial Reform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54.
- Grenz, Stanley J. (1997). *The Moral Quest : Foundations of Christian Ethics*. 신원하 역 (2001). 『기독교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서울: IVP.
- Grenz, Stanley J. and Roger E. Olson (1992). *20th Century Theology : God and World in a Transitional Age*. 신재구 역 (1997). 『20세기 신학』. 서울: IVP.
- Hayek, F. A. (1944). *The Road to Serfdom*. 김영칭 역 (1999). 『노예의 길』. 서울: 자유기업센터.
- Hayek, F. A. (1973).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1 : Rules and Ord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양승두·정순훈 역 (1991). 『신자유주의와 법』. 서울: 연세대출판부.
- Hayek, F. A. (1978). "부의 창조와 발전의 기본전략". 서울신탁은행 방문 연설.
- Hayek, F. A. (1988). *The Fatal Conceit : The Errors of Socialism*. 신중섭 역. (1996). 『치명적 자만』.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Jensen, H. E. (1987). "The Theory of Human Nature". *Journal of Economic Issues* 11(3). 1039-1073.
- Polanyi, Karl (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 Schaffer, F. (1968a). *The God Who is There*. 김기찬 역 (1994). 『거기 계시는 하나님』. 프란시스 웨퍼 전집 1. 서울: 생명의말씀사.
- Schaffer, F. (1968b). *Escape of Reason*. 김영재 역 (1994). 『이성에서의 도피』. 프란시스 웨퍼 전집 1. 서울: 생명의말씀사.
- Schaffer, F. (1972).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허긴 역 (1994).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프란시스 웨퍼 전집 1. 서울: 생명의말씀사.
- Stapleford, J. E. (2002). *Bulls, Bears and Golden Calves*. 이우성 역 (2007). 『그리스도인의 경제학 산책』. 서울: ISLE.
- Stephen E. Fowl and L, Gregory Jones (1991). *Reading in Communion: Scripture and Ethics in Christian Lif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 Van Parijs, Philippe (1997). *Real Freedom for A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Christian Review on the Hayek's Economic Thoughts : Focused on the Human Understanding and Market Order

Jeong-Gil Lee(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Hayek's human understanding and market order theory and its impact on shareholder capitalism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The limitations of Hayek's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in terms of the Christian world-view is that reason is the only way to recognize the truth and human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truth recognition. This approach is confrontation with the biblical truth. That approach does not acknowledge the possibility of revelation. In contrast, the Bible shows that the revelation takes precedence over reason. In addition, his recognition of the limits of reason is connected to the agnostic or atheist, but this association is not inevitable.

To Hayek, as a spontaneous order, market order is the best system in reality. The limitation of the theory of the market order is that the theory has not sufficient historical evidences and does not meet biblical historical view. In addition, his market order has a strong person orientation and is not value-neutral. This means that market intervention by external forces may be nee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external intervention is the community care theory or community-oriented concept that appears in the Bible. In the same perspective, deregulation and the absolute private property rights, the background of shareholder capitalism also should be modified and complemented.

Key Words: Hayek, market order, shareholder capitalism

